

나의 베나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43:1-15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Lo73U9JYRiw?si=Kz9sHTQ1feeNyI3x>(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지키고 싶은 '나만의 베나민'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시므온마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베나민만큼은 끝까지 내 손으로 지키려 버텼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나민을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 삶의 극심한 기근은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고집을 꺾고 내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벼랑 끝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야곱의 기문을 살린 것은 바로 유다의 희생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담보로 내어놓으며 참된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이 희생적인 모습은 죄와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과 중보가 굳게 닫혀 있던 축복의 문을 열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마침내 야곱은 고집을 꺾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를 기억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다"라며 가장 사랑하는 베나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행복입니다. 내가 움켜쥐면 위기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지키려던 나만의 베나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살리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롬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유다는 애굽으로 베나민을 데려가기 위해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베나민을 위한 무엇이 되겠다고 약속합니까? (창 43:9)
2. 야곱은 베나민을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며, 어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창 43:14)

[삶의 적용]

1.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오늘 내가 고집을 꺾고 힘을 빼야 할 영역은 어디이며, 끝까지 내 손으로 지키려 하는 '나만의 베나민'은 무엇입니까?
2.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엘 샤다이)께 맡겨드리기 위해, 오늘 어떤 믿음의 행복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내 힘과 고집으로 지키려던 나의 베나민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